보성군장학재단 상반기 장학금 1억 4천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전년比 155% 증액…장학생 173명 전원 지급

3개 중 · 고교에 특기적성 계발 사업비 2천만원 지원하기도

(재)보성군장학재단(이사장 박호배)은 2020년 상반기 장학생 173명에게 장학금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보성군 지역 내 3개 중 · 고교에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사정을 감안하여 상반기 인재육성 장학금을 전년대비 155%를 증액하고, 장학금 신청자 184명 중 교육비 납입액이 50만원 이하 등 결격자 11명을 제외한 신청자 173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3개 중 · 고교에 특기적성 계발 사업비(2천만 원)를 지원하며 장학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기적성 계발 사업은 단순 방과 후 학습활동 외에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잠재력 깨울 수 있도록 탐구 · 창작 활동이 가능한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보성군장학재단은 4개 분야의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에 6천만 원(3개교), 전문계고 특기적성 계발사업에 2천만 원(2개교)을 지원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2008년에 설립된 보성군 장학재단은 기금 200억 원을 목표로 5월 말 기준 1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걸음마 떼나

관광 관련 사업체 대표 간담회…설립 필요성 공감대 형성

광양시가 최근 커뮤니티센터에서 관광관련 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광양시관광협의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광양관광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여행업, 관광레저, 교통 · 숙박 사업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필요성 및 취지, 추진방향,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관광협의회는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시민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제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구축 토대를 마련하고 진흥사업을 촉진해 나갈 비영리 민간 주도 협의체다.

참여 제한성을 보완해 지역관광 조직이나 단체, 시민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협의와 자문 수준의 역할을 넘어 의사결정, 실행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장이다.

관광협의회는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 육성, 홍보 마케팅 지원, 지역 행사 · 축제 활성화, 각종 수익사업과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 설립은 발기인 구성, 명칭 확정,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 설립 준비를 갖추고 법인 설립허가 및 등기 등 마무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회가 설립되면 오는 10월 조성 완료 예정인 선샤인관광협업센터(가칭)에 둥지를 틀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 여행사 대표는 "광양관광협의회가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기인 구성과 회원모집,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차근차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관광협의회는 관광에 관해 시민과 함께 하는 협력과 소통의 채널인 만큼, 한마음으로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다해간다면 상생과 관광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 풍수해 · 산사태 재난예방대응 총력

태풍 · 호우 피해예방을 위한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2020년 여름철 재난안전대책기간을 맞아 오는 10월 15일 까지 6개월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에서는 기상상황과 산사태 위기경보에 따라 단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적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6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개 관할 시 · 군(순천, 광양, 여수, 구례, 곡성, 담양, 화순, 보성, 고흥) 의 국유림내 산사태취약지역 124개소에 대해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비상연락체계구축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예행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박상춘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재난예방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와 기상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처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고흥유자차, 체코에서 선풍적 인기

두원농협 11톤 수출…작년 대비 300% 증가 전망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농식품 교역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반해 고흥유자차가 체코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5월 29일 두원농협의 유자차 11톤을 체코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체코로 세 번째 수출길에 오른 고흥유자차는 5월까지 수출량이 30여톤에 이르고, 이미 작년 한해 전체 27톤을 넘어섰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수출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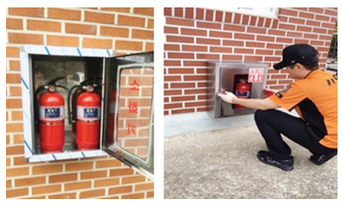
현지 수출바이어는 향후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될 경우 올해 말 80톤 가량을 수출해 지난 해 대비 약 3배정도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했다.

군은 지난 해 수출 촉진단을 구성하여 진행한 현지 판촉행사와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해 유자차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점 홍보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두원농협 신선식 조합장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와 내수시장 위축으로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베트남 등 동남아에 이어 체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여러 해외시장에 고흥유자를 수출할 수 있도록 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성장 발판을 마련한 체코 등 유럽에 고흥유자차가 시장 장악력을 더욱 높여갈 수 있도록 현지 온 · 오프라인 광고와 하반기 해외 판촉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소방서 소방차 진입 곤란 마을 소화기함 설치

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는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관내 골목길에 소화기함을 설치하였다.

'골목길 소화기함'은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하고 소화전이 미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골목길 소화기함(분말소화기)을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화재발생 초기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치대상은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서면 구상마을 등 6개소에 13개(소화기 26개 포함)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였다.

또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교육하고, 이후에도 관할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강상언 순천소방서 현장지휘단장은 "화재 발생 초기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한다.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지속적으로 소화기함을 설치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TV 홈쇼핑에서 광양매실 홍보 나섰다

광양시는 본격적인 매실 출하기를 맞아 TV 홈쇼핑을 통해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 · 판촉 활동에 나섰다.

1일 NS홈쇼핑 방송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총 8회에 걸쳐 공영홈쇼핑, NS홈쇼핑에 엄격하게 선별한 청매실, 남고매실, 황매실, 매실 당절임을 판매할 예정이다.

광양매실은 지리적표시제 제36호로 등록되어 있고, 2015년부터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뽑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 5년 연속 대상을 받는 등 명품 매실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축제, 직거래장터, 박람회 등이 취소되고 비대면 소비문화로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실 농가를 돕기 위해 TV 홈쇼핑을 추진하게 됐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